

조 직 신 학

1.조직신학의 정의

조직신학이란? 주어진 주제에 관해서 “성경 전체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하는 연구를 가리킨다. 조직신학이란 여러 다양한 주제에 관하여 성경을 통한 가르침을 정리함으로써 그 주제에 관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도록 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조직신학은 “성경 전체가 오늘날 ???에 대하여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가르치는가?”-성경의 가르침을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아주 신중하게 형성된 진술을 통해 요약하고자 하는 것이다.

1)생활에의 적용

“성경 전체가 오늘날 ???에 대하여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가르치는가?”라는 말은 생활에의 적용이 조직신학이 추구해야하는 부분임을 암시하고 있다. 그래서 교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실제적인 가치로 추구되어야 한다.

2.교리란 무엇인가?

교리란 성경 전체가 오늘날 특정한 주제에 관해 가르치는 것을 뜻한다. 교리라는 말은 조직신학에 대한 정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교리”란 어느 특정한 주제를 놓고 조직신학을 하는 과정의 결과임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3.조직신학의 조직된 구분

- 1)서론 -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교리
- 2)신론 - 하나님에 관한 교리
- 3)인죄론 (인간론) - 인간에 관한 교리
- 4)기독론 (그리스도론) - 그리스도와 성령에 관한 교리
- 5)구원론 - 구속의 적용에 관한 교리
- 6)교회론 - 교회에 관한 교리
- 7)종말론 - 미래에 관한 교리

이와 같은 주요 교리적 범주 안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많은 구체적인 가르침들을 포함시켰는데, 일반적으로 그것들은 적어도 다음의 세가지 기준 중 하나가 부합되기 때문이다.

- 1)그것들은 성경에서 가장 강조된 교리들이다.
- 2)그것들은 교회 역사를 통하여 가장 중요한 것들이었고,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중요한 교리들이다.

3)교회의 역사 가운데 현 시점에서 기독교인들에게 중요한 교리들이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렇게 큰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예를 들면 성경의 무오설, 성령 세례, 영적 전쟁과 관련된 사단과 마귀설, 신약 시대의 영적 은사에 관한 가르침 등 이와 같은 교리들은 현재 상황에서는 매우 의미있고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들이다.

4.조직신학을 연구하는 기본적인 이유

만일 우리가 신앙의 가장 관련 있는 구절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그 가르침을 적절하게 요약한다면, 그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조직신학을 공부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것을 우리와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침으로 지상명령의 두 번째 명령을 준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제 1 장 인간론의 중요성

인류역사와 인간의 지적영역에서 철학자들이 논해온 가장 중대한 질문들 중의 하나가 “인간은 무엇인가?”였다.

-플라톤은 저서인 ‘대화록’을 통해서 스승인 소크라테스를 ‘자기를 알기위한 지혜’를 추구하기 위해 무던히 애쓴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다.

수 많은 사상가들은 “인간은 무엇인가?”라는 질문과 사람의 사고와 생활에 대해 많은 학문적이고 철학적인 영향력은 던져주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에 들어와서 인간에 관한 질문과 관점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

오늘날은 인간의 궁극적인 실체나 존재론에 관한 문제들에는 별로 큰 관심을 갖지 않는 대신 인간 자체에 관해서는 매우 심각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즉 인간이 무엇을 하는 것에 대한.. 그리고 인간의 필요를 위한 것들, 인간 자체를 위한 방향으로 모든 것이 발전하고 나아가고 있다.

인간 = 무엇을 하므로 / 무엇을 즐기므로 / 무엇을 누리므로 라는 인간자체에 대한 내용적이고 인식적인 부분의 평가로 변화되어졌고, 모든 것이 인간을 위한 기준으로 평가되고 정의되고 있다.

1.인간론 변화의 이유와 배경

1)임마누엘 칸트 이후 - 인식론에 관한 문제가 (어떻게 알게 되는가?) 가 매우 중요

한 이슈로 자리 잡게 되었다. (존재보다는 내용과 실제적인 인식의 부분에 집중함)
반면에 존재론에 관한 문제 (무엇이 궁극적이 실체인가?) 는 이차적 요소로 자리
잡게 되었다.

2)철학적, 문학적, 신학적 사고방식으로서의 실존주의

철학적, 문학적, 신학적 사고방식으로서의 실존주의의 부상은 인간에 관해 새로운
강조를 두기 시작하였는데

-즉 인간의 실존은 인간의 본체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상이다.

-현대사회의 완벽한 인본주의 시대의 문을 열게 된다.

한 인간이 다른 사람들과 공통되는 것이 무엇인가? 를 찾는 일 보다

오직 한 인간 실존에게 독특하고 유일한 것이 무엇인가를 탐구하는 것이 “인간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데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실존적인 관점)

실존주의란 - 인간은 무엇인가 에 대한 질문을 새로운 각도에서 묻는 새로운 사고 유
형이다. 하나님을 믿는 일은 매우 희귀한 일이 되어 버리는 대신에 인간과 인간이
만든 내용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처럼 우리는 새로운 인본주의의 발흥을
보게되는 것이다.

3)이러한 인본주의의 팽배도 곧 혼돈에 빠지게 됨

2번의 세계대전을 통해 인간은 근본적으로 선하며 인간이 가진 가치들이 중요하다
라는 희망적인 인간본연에 대한 회의감과 의문들이 전쟁을 통한 인간의 잔혹성과 공
포를 통해 인간의 가치체계를 부인하고 삶의 무의미성을 말하는 허무주의의 새물결이
오게 되었다.

4)오늘날 인간의 가치관들을 위협하는 요소

-과학적 기술공학의 안하무인적 급상승

-관료주의와 주직사회의 팽배

-대량생산 기술의 증가 /물질적 풍요와 물질적 번영주의

-대중매체의 엄청난 영향력

이러한 비인간적인 세력들은 인간으로부터 인간성을 철저히 빼앗아 갈뿐 아니라
철저히 인간을 비인간화 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생물학, 심리학, 사회학에서의 새로운 발전은 소수에 의해 대중을 조작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2.비 기독교적 인간론의 여러 가지 유형

관념론적 인간론	인간은 근본적으로 정신이며 ,인간의 물질적인 육체란 인간의 근본적 본성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생소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	--

<p>관념론적 인간론</p>	<p>-고대 희랍철학에 뿌리를 둬.</p> <p>플라톤 : 사람에게 있어 참으로 존재하는 것은 사람의 지성(이성)일 뿐이며 이 지성(이성)은 인간 안에 있는 신성의 불꽃이며 육체가 죽은 후에도 계속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육체는 질료(물질)를 취하게 되는데, 이 질료는 우주의 실체중에서 저급한 질서에 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육체는 정신에 대해서는 방해물 밖에 되지 않으며 이 질료(물질)가 없어야만 사람은 더 고급의 존재가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를 갖는 사람들은 영혼의 불멸성은 가르치나 육체의 부활은 부인하게 된다.</p>
<p>물질주의 적 인간론</p>	<p>이러한 유형의 인간론은 오늘날 가장 팽배해 있는 사상적이고 실제적 문제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인간은 오직 물질적인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외의 정신적, 감정적, 영적 삶이란 인간의 물질적 구성의 부산물들 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막스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인간은 단순히 자연의 산물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꿈에도 상상치 못할 일이며 창조주의 존재마저 부인되고 있다.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도덕적 책임의식이나 윤리적 지상명제이니 하는 말은 막스주의에게는 전혀 생소한 문구들이다. 인간은 사회구조의 한 부분일 뿐이다. 악이란 사회구조로부터 발생하며 사회구조의 변경을 통하여 악은 제거될 수 있다고 철저히 믿는다.</p> <p>-개인은 자기가 행하는 악에 대하여 일차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 대신 사회가 지게 된다.</p> <p>-막스주의에 있어서 인간이란? 한 인격적 개인으로서 중요성을 갖지 못하고 인간이란 한 인격적 개인으로서 중요성을 갖지 못한다. 오직 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만 그 가치가 인정된다.</p> <p>-막스주의의 목표는 개인구원이 아니라 완전한 사회의 미래적 성취에 있다. 완전한 사회가 오면 가진 자 와 갖지 못한 자 상의 갈등이 제거되고 해소된다고 여기며 이러한 미래사회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폭력을 수반하는 혁명적 행동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그들은 말한다.</p> <p>스키너 (B. F. Skinner) - 저서 ‘자유와 위엄을 넘어서’를 통해서 인간은 자기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라는 생각은 더 이상 과학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 라고 주장.</p> <p>-인간의 행위를 결정짓는 요소는 “자율적 인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살고 있는 환경이라는 것이다.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할 자유를 갖고 있다는 생각은 신화이며, 사람의 행위는 전적으로 사람의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인간 안에는 결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마음(정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람에게 자유</p>

	<p>니 위엄이니 하는 따위는 있지도 않다. 인간의 행동은 전적으로 환경에 의해 결정되며 만일 이 환경이 완전하게 인간에게 알려진다면 인간의 행위는 완전하게 예측될 수 있다는 것이다.</p> <p>관념론적 인간관은 오직 인간의 “영혼”, “정신”, “이성”에만 강조점을 둔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의 물체적 구조성에 대한 실체를 부정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p> <p>반면 막스나 스키너의 견해로 대변될 수 있는 물질적 인간관은 소위 인간의 “정신적”, “영적” 측면의 실체를 부정하면서 오직 인간의 육체적 측면만을 절대화 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식의 평가를 넘어서서 문제의 핵심 속으로 깊이 들어갈 필요성이 있다. 언급된 인간론들은 제각기 인간 존재의 한 국면만을 절대화시키고, 따라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인간실존의 의존성 내지 책임성을 제쳐 놓고 있으므로 이러한 인간관들은 우상숭배의 죄책을 벗어날 길이 없게 된다.</p>
교회속에 들어온 비기독교적인 인간론	<p>중세기 - 스콜라주의적 인간론</p> <p>시대와 문화적으로는 기독교적이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질적으로는 여러가지 비기독교적 사상과 혼합된 인간론을 가졌던 스콜라주의적 인간론이 있었다. 이는 아리스토텔리스적 철학에서 발견되는 관념론적 인간관에다 기독교적 인간론을 종합화시키려 했던 경우였다. 두 개의 서로 다른 인간론을 잘못 종합화시킨 결과들이 불행하게도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자면, 기독교인들은 흔히 생각하기를 “육체의 죄를”(간음 같은 죄)은 “영적인 죄를”(자만, 시기, 자기중심적 이기심, 인종차별주의 등) 보다 한층 더 중대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악이라는 주로 육체 속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생각(스콜라주의적 인간론 속에 함축적으로 포함되어 있다.)에서부터 생기게 되었다고 말 할 수 있다.</p>
방향	<p>그러므로 인간이 무엇인가를 잘 아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올바른 기독교적 인간이해에 도달하려고 노력하는 동시에 잊지 말아야 할 질문이 있다. 우리가 인간에 관해 생각할 때에 아직도 우리의 생각 속에는 비기독교적인 인간관의 잔재들이 남아있지는 않은가?</p> <p>인간에 대해 잘 아는 것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가? 혹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는 큰 진리가 인간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좀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p> <p>우리가 올바른 인간관을 갖게 된다면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도 좀더 밝히 이해하게 되지 않을까?</p>

	<p>우리의 인간론은 구원론(그리스도가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혜택이 성령에 의해 우리에게 적용되는 과정)에 대해 좀더 분명한 빛을 던져 주지 않겠는가? 인간에 본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하여 교회론과 종말론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은 아닐까?</p> <p>기독교적 인간론은 우리의 매일의 삶을 향해 어떤 상관성을 제공하는가?</p> <p>기독교적 인간관은 오늘날 이 세계가 당면한 문제들을 좀더 분명한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지 않겠는가?</p> <p>성경이 인간에 관해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인간은 하나님과 피할 수 없는 관계성 속에 놓여있는 존재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관계성을 부인하는 모든 인간론은 옳지 못한 것으로 우리는 담대히 평가하여야 한다.</p> <p>그러므로 관념론적인 인간관과 물질주의적인 인간관을 한쪽으로, 그리고 기독교적, 성경적인 인간관을 또 다른 쪽으로 양분하여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한다. 인간론을 통하여 기독교적 인간관을 탐구하고 어떻게 비기독교적 견해들과 다르며 기독교적 인간론의 성경적인 해답을 찾아냄으로서 비기독교적 개념들이 소위 기독교적 인간론 속으로 잠입하여 들어오는 것을 막고 복음 앞에서의 인간을 이해하고 전달해야 한다.</p>
--	---

제 2 장 피조된 인격체로서의 사람

인간에 대한 크리스찬의 견해중 가장 기본적인 근본중의 하나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것이며, 이것은 인간을 자율적 혹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지적해 준다.

1.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창1:1,27)

창조사건의 요점 : 모든 피조물은 시작부터 존재, 종말에 이르기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속해 있다는 점이다. 성경은 존재하는 모든 만물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해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2.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느9:6)

하나님은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신다는 것은 곧 모든 피조물의 존재는 하나님에 의해 지속된다는 것을 말한다.

바울은 이 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 이시며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기도 한다”고 전파하였다(행17:25,28) 이 말씀을 통해 바울은 우리가 숨 쉬는 자체조차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즉 하나님 안에서만이 우리가 존재할 수 있으며 우리의 모든 움직임 하나하나까지 그에게 속해 있다는 것이다.

3.반면에 사람은 피조물일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인격체이다.

인격체라 함은 일종의 독립성을 지닌 존재임을 가리킨다.

독립성이라는 특성은 하나의 인격체는 결단력을 지니며, 목적을 세우며, 그 목적을 향하여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를 말한다. 즉 인격체는 적어도 자신의 선택에 대한 자유를 소유한다. (자유의지) 인간은 외부의 힘에 의해 만사가 결정되는 로봇이 아니라 스스로 결정하는 힘과 스스로 방향을 설정하는 힘을 가졌다는 말이다. 즉 “선택권을 소유한 피조물” 됨을 말하는 것이다.

즉, 인간은 피조물인 동시에 하나의 인격체, 곧 피조된 인격체(created person)인 것이다.

어떻게 사람이 피조물인 동시에 인격체가 될 수 있는가? 이것이 사람에 대한 중심적인 신비라고 정의 할 수 있다.

-피조물이라 함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말하며

-인격체라 함은 상대적으로 독립성을 지니고 있음을 말한다.

피조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고 말 한마디조차 내뱉을 수 없으나 인격체로서 나는 나의 손가락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으며, 내가 말하고자 할 때 나는 말을 할 수 있다. 피조물로서 우리는 진흙에 불과하며 하나님은 토기장이시지만(롬9:21) 인격체로서의 우리는 우리의 결단들로 우리의 삶을 설계해 나가는 것이다.(갈6:7~8)

이것이 사람에 대한 중심적인 신비이다. 존속과 자유는 우리의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공존할 수 없는 것들이다. 즉 인간은 의존적이며 책임적이다.

이러한 사고가 잘 이해되어지지 않아도 온전한 의존과 인격체로서의 자유가 서로 공존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

성경은 사람을 피조물 됨과 인격체 됨을 동시에 가르치고 있다.

-롬9:12 하나님을 토기장으로 인간을 진흙으로, 피조물로 비유하시나

더 흔한 표현은 인간을 인격체로서 이야기 하신다.

수24:15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고후5:20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인격체로서의 선택과 결단을 요구하고 계신다.

*신학적 이해는 피조물과 인격체라는 두 가지에 모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비기독교적 인류학은 인간의 피조성을 거부하고 있기에 사람에 대해 그릇된 개념을 주고 있다.

*반면 , 모든 결정론적 인류학들은 인간을 마치 하나님이 줄을 잡아 당기거나 버튼을 눌러 조종되는 꼭두각시나 로봇으로 다루기 때문에 인간이 인격체임을 역시 올바르게 나타내지 못한다.

●신학이 인간의 피조성만을 강조하고, 그 인격성을 경시할 경우 무분별한 결정론에 빠지게 되고 사람은 인간성 그 자체를 상실하게 된다. 반면 피조성을 제외한 인격성만을 강조하였을 때 사람 자체가 신성화되며 계획과 목적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거나 한 것처럼, 하나님은 밖에 서신 채로 속수무책이시게 된다. (로버트 브린스미드 -Robert D. Brinsmead)

▶ 토의

사람이 피조된 인격체라는 사실을 두고 몇가지 토의를 해보자.

1.이 사실이 죄의 기원에 관해 어떤 의미를 드러내는가?

왜! 사람이 죄를 지었는가? 하는 문제는 영구적 미스테리로 남아있지만,

우리는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은 곧 그가 선택권을 가진 인격체라는 기준으로 보아야 하며

-이 선택권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면서 까지도 행사되는가?

이 선택권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면서 까지도 행사되기도 한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힘마저도 우리에게 주셔야만 했던 것이다. 이런 면에서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사탄을 위해 쫓다는 사실 때문에 사람의 죄의 심각성은 더욱 커지는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의존해야 하는 피조물**로 남아있다.

●신학적 논쟁

허락된 의지 : 우리의 첫 조상들이 피조된 인격체로서 죄에 빠졌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첫 번째 죄와 관련하여 하나님의 “허락된 의지”(permissive will)라는 말을 쓰게 되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자에게 책임을 추궁하기는 하였으나 이 죄가 하나님의 기대 밖의 사건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2. 피조된 인격체라는 개념이 하나님이 인간을 구속하시는 일에 어떤 점을 밝히 보여주고 있는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에서는 (의존적)

그가 타락한 후에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섭을 통해서만 죄에서 구원되고 타락한 상태에서 구속될 수 있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는 은혜를 통해서만, 즉 전적으로 하나님의 공휼을 의지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사람이 인격체라는 사실은 (책임적)

인간이 구속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음을 지적해 준다.

인간은 천국의 컴퓨터로 입력받은 로봇처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요 한 인격체로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즉 인간은 자신들의 구속과정에 대한 어떤 책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인간은 성령의 힘을 입어 자발적으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인간은 이런 개인적인 선택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 한 인격체로서 이런 선택을 하고 난 후에 그는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교제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생활을 지속해야 하는 것이다.

●이 부분은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이라는 부분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의지하여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이 주어지지만 이런 삶을 살기 위한 우리의 인간적 책임을 면제해 주지는 않는다.

3. 거듭남과 믿음과의 관계

거듭남이란? (거듭남은 말씀의 선포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

성령께서 주시는 것으로 이를 통해 성령은 한 인격체를 주님과 결합된 삶으로 인도하며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 영적으로 죽었던 그를 영적으로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다. 이러한 대대적인 변화는 사람의 행위가 아니요 하나님의 역사임이 분명하다. (요1:13)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자(엡2:5)이기에 죽은 인격체가 스스로를 살릴수 없고, 사람은 피조물인 고로 인간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만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 위대한 기적으로 거듭난 사람을 가리켜 바울은 “새로운 창조-피조물”(고후 5:17)이라 말했다.

-사람이 피조물이고로 하나님은 영적으로 죽은 인간에게 새생명을 주셔야만 했다. 하지만 사람은 또한 인격체인 고로 복음에 대해 믿음으로 화답해야 한다. 다시 말해 주님을 받아들이려는 의지적이고 인격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 두가지, 즉 거듭남과 믿음은 언제나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 일단 복음이 듣는 자들에게 전달되었을 때는 개인적 결단을 촉구하는 믿음을 요청한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인간은 믿어야 한다. 이렇기 때문에 거듭남과 믿음은 항상 함께 있어야만 한다. 이 부분을 좀더 연장하여 성화의 과정과 연결하여 생각해 보자.

4. 성화

성화란 사람의 책임 있는 참여와 관련하여 사람의 성품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는 성령의 작업이라 정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성화는 하나님의 사역인 동시에 사람의 과업이기도 하다.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을 성령을 통하여 성화시켜야만 하며 동시에 사람은 인격체이므로 그들 자신이 “하나님을 두려워 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룸으로써”(고후7:1) 책임적으로 이 성화의 과정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다.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하여 빌립보서 2:12~13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인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 “이루라”(κατεργαζεσθε ; 카테르가제스데)로 번역된 헬라어는 초대교회 시대에 통용되던 파피루스 문서에 의하면 농부가 자신의 토지를 경작하는 모습을 묘사하는데 사용된 단어이다. “구원을 이루라”는 말씨는 결국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너희는 “가꾸라”라는 말로 생각할 수 있다. 하나님이 심어 주신 것을 너희가 자라게 하라는 말씀이다. 적용하면 내가 받은 구원을 너의 직업, 여가, 가정, 문화, 예술, 과학 등등의 삶의 모든 방면에 적용하여 가꾸라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즉 바울은 서신을 읽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성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증진시키라고 권고하는 것이다. 우리가 성화를 위해 힘써 일하면 일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성화를 통해 우리를 인격체인 동시에 피조물로 대하고 계신다.

5. 성도의 견인

사람의 피조성과 인격성의 관계는 성도의 견인의 교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며 하나님을 향하여 참되게 하셔야만 한다(요10:27~28; 롬8:38~39; 히7:25; 벰전1/3~5; 유 24절을 보라).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에 의지하되 반드시 신자는 믿음 안에서 인내해야만 한다(마10:22; 고전16:13; 히3:14; 눅3:11). 우리는 피조물이기에 하나님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것이 없이는 타락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인격체이기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케 하셔서 우리를 보존하는 것이다.

이 “피조성-인격성”의 상관관계론은 신학 전반에 많은 의미를 던져주고 있다. 성경은 가르치기를 하나님은 인간을 자기와의 언약 관계 안에서 구원하신다고 한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인 고로 이 언약관계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 이리 함으로써 은혜언약은 그 기원에 있어서 일방적이다. 반면 인간은 동시에 인격체이므로 이 언약에 대해 책임을 지니고 있으며 그에게 부여된 언약의 의무조항들을 실행하여야 한다. 이처럼 은혜언약은 그 완성이란 측면에 있어서 상호적이다.

더 나아가서, 인간을 피조된 인격체로 이해하는 것은 은혜언약이 조건적이냐 무조건적이냐 하는 분분한 논쟁을 해결해 줄 수 있다.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은 그 기원에 있어서 무조건적이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 언약을 완수해야 하는 조건들에 상관없이 언약을 세우셨다. 그러나 동시에 사람은 인격체이므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그의 언약의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몇몇 조건들을 실행하도록 요구하신다. 하지만 사람은 이 조건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만 완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은혜언약에서는 하나님이 주권적 은총과 인간의 중요한 의무가 주목된다. 성경은 언약의 약속(covenant promise)과 언약의 위협(covenant threats)을 동시에 다 포함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이 두 가지 측면을 다 드러내야 한다.

▶인간은 피조된 인격체라는 사실은 이상과 같은 설명으로 충분하다고 본다. 개혁주의 내지 칼빈주의적 전통에 서있는 신학자들은 전통적으로 인간의 피조성(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의존성)만을 강조해 왔으며 따라서 인간 삶의 모든 면에서와 특히 죄로부터의 구원 사역에 관한 하나님의 궁극적 주권성만이 강조되었다. 반면 알미니안적 신학자들은 통례적으로 인간의 인격성만을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의 구속과정에서의 인간의 자발적 결단과 그 후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신실성만을 중요시 여겨왔다. 그러므로 인간이 피조물인 동시에 인격체라는 역설적 사실을 늘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무를 동시에 잘 드러나게 하는 길이다. 즉 개혁주의 전통을 따르는 학자들은 인간의 책임성을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될 것이며 반면에 알미니안 계통의 학자들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될 것이다.